

<2012년 1월 14일 토요일 새벽 잠언>

19. 백성 중의 한 여자가 한 나라의 왕을 기쁘고 만족하게 한 조건은 돈도, 보화도, 어떤 노래도 춤도 아니다. 왕은 가진 것이 너무나 많아서 없는 것이 없다. 이 여자가 왕을 만족하게 해 줄 유일한 길은 왕을 사랑하는 것밖에 없다. 왕을 사랑하면 여자도 만족하거나 왕도 만족하지 않을 수 없다. 인간도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 그러하다.

20. 한 여자가 그 나라 황태자에게 이끌려 휴거될 길은 ‘오직 사랑’밖에 없듯이, 주님을 맞아 땅에서 육 휴거를 이루는 길도 ‘오직 사랑’밖에 없고, 영 휴거를 이루는 길도 ‘오직 사랑’밖에 없다. 사랑 외에는 주님께 이끌려 갈 수 없다.

21. 휴거의 은밀한 비밀은 ‘사랑’이다. 한 나라 임금의 아들인 황태자가 잠깐 시골에 왔을 때 그에게 이끌려 갈 길은 ‘오직 사랑’밖에 없듯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신랑으로 재림하셨을 때 주님께 이끌려 갈 길은 ‘오직 사랑’밖에 없다.

22. 예수님은 사랑의 존재시라 진실한 사랑을 하면 주님께 이끌려 간다.

23. 존재물의 비밀을 알아야 그 존재물과 일체 된다.

24. 한 물체가 있는데, 수만 가지 물체 중에 오직 한 가지만 거기에 들어붙을 수 있다. 지남철에게는 어떤 물체만 들어붙겠느냐. 나무도, 돌도, 보석도, 다이아몬드도, 돈도, 집도, 환경도, 명예도, 권세도, 인물도, 미(美)도, 좋은 책도, 좋은 그림도, 분재도, 작품도, 여자도, 남자도 지남철과는 안 붙는다. 오직 ‘쇠’만 붙는다. 이와 같이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만 주님께 들어붙어 주님께 이끌려 육 휴거도 되고 영 휴거도 된다. ‘온전한 사랑’은 휴거의 비밀이다.

25. 사랑하는 사람을 두고 다른 사람을 또 사랑하는 이중적 사랑은 참사랑이 못 된다. 오직 주님만 진실로 사랑해야만 주님께 이끌려 휴거되어 그 영이 1000년 동안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혼인 잔치하고 사랑 잔치하며 살게 되고, 그 육신도 땅에서 휴거된 몸으로 죽을 때까지 주님을 신랑으로, 사랑의 대상으로 모시며 지상천국의 삶을 살게 된다.

26. 벼슬을 하려면 벼슬자리를 뽑는 시험을 볼 때 시험 문제의 답을 알아야 답을 써서 벼슬을 한다. 이와 같이 2000년 동안 기다린 예수님의 재림도 어떻게 맞는지 답을 알아야 주님을 맞고 휴거될 수 있다.

27. 성경의 약속대로 예수님은 확실히 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 이는 내일 동쪽에서 해가 뜨는 것만큼이나 확실하다.

28. 예수님이 어떻게 재림하실지 알아야 맞을 수 있다.

29. 동쪽에서 해가 어떻게 뜨는지 알아야 된다. 먼저 동쪽이 어디인지 알아야 된다.

30. 해 뜨는 시간이 되었으나, 그 날 비가 오고 하늘에 구름이 짙 끼었으면 해가 뵈어도 안 보이니 모른다. 고로 해가 뜨는 것을 알려면 첫째, 종전에 해 뜨는 시간을 알면 된다. 해가 안 보여도 해가 뜨면 기온 변화가 있다. 아무리 구름이 끼어도 해가 뜨면 밤보다 환하다. 비바람이 그친 후에 태양이 보인다. 그때는 너무 늦다. 구름 위로 올라가면 태양이 보인다. 이와 같이 영의 차원을 높이면 주님이 보인다.

31.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도 영체가 오시니 사람의 육의 눈에는 안 보인다. 또 시대가 험하고 악하여 환난과 핍박의 먹구름이 끼면 주님이 안 보인다.

그래도 지난 과거 역사같이 때를 계산하여라. 구약 4000년이 끝나고 약속대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 이와 같이 신약 2000년이 끝나면 약속대로 주님이 다시 오신다.

초림 때 예수님은 육의 사람을 쓰고 오셨고, 재림 때는 신령한 영의 몸으로 오신다. 주님은 영체로 오시어 세상에서 미리 예정하고 키운 자, 곧 정신과 마음이 같은 자의 몸을 육으로 쓰고 오신다.